



전주비전대-우리들사랑요양병원,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22일 시뉴테크실 에서 우리들사랑요양병원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김미선 교목실장, 전현주 물리치료학과장, 김재현 간호학부장, 방사선과 구분열 교수, 김영임 현장실습지원센터장과, 우리들사랑요양병원 측에서는 권창영 병원장, 권강 행정부장, 이효실 간호부장, 박용철 관리부장, 홍성래 원무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양 기관은 △취업정보 제공 및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회사업(위탁 설립)의 공동 제안 및 운영 지원 △자원 봉사 및 현장실습 지원 △학생 특강 및 기관 견학 지원 △교직원 및 직계가족의 의료 혜택 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학생봉사단 유학생 한국문화 알리기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봉사단과 연계해 전주 비빔밥 체험, 한복 입고 경기전 관람하기, 포토존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문화를 강의실에서 배운 후 한옥마을을 찾아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임유점(중국, 상담심리학과) 학생은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고 활동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대상

호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학과장 홍인기)는 지난 19~21일 서울 양재동 코엑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 참가해 전원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조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로, 우수한 조리기능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사단법인 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스포츠재활 재능기부 활동 펼쳐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학과장 전현주)는 최근 익산실내체육관과 우석대 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재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는 아·태 마스터스대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위해 LINC 3.0 협약업체와 함께 스포츠레이핑과 기능적마사지 및 스포츠예방을 위한 임상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외 참여 선수들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운동 중 통증은 부위에 대한 기능적 마사지와 체외충격과 치료를 통해 준비했던 실력을 가감 없이 펼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전북대, 전북현대모터스 '전북대인의 날' 지정 대규모 응원

지난 21일 저녁 6시 30분 수원FC와의 홈경기가 열린 전주 월드컵경기장이 전북대학교 구성원들의 열기와 합성으로 들끓었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이날을 '전북대인의 날'로 지정, 2천여 명의 전북대 구성원들이 대규모 응원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와 전북현대모터스는 지난 2015년 협약을 맺고 대학과 축구단 상호 이미지 홍보나 교류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끈끈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대인의 날 행사는 전북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와의 밀착형 소통의 일환이다.

이날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학생과 직원, 교수, 유학생 등 총 2,145명이 경기를 관람했다. 이들은 전북현대모터스를 상징하는 녹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다. 전북대 중앙동아리 학생들은 경기장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는 공연으로 선수들을 응원했다.

또한 이날 양 총장은 전북현대모터스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시축에 참여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후 양 총장은 전북대 구성원들과 함께 목청껏 선수들을 응원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지난 19일 전북대에 실습용 전기자동차 2대(코나EV, 스타리아)를 기증한 것



과 관련해 사전 행사로 공식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경기는 전북현대모터스가 3대 1로 압승을 거뒀다. 양 총장은 마지막까지 경기장에 남아 열렬한 응원을 함께한 학생 및 교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승리의 기쁨도 함께 나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와 전북현대모터스는 모두 탁월한 성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기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고, 지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해양 의장은 22일 "심신은 물론 사회질서를 해치는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캠페인에 가까이 동참한다"며 "마약은 한 번 손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장은 전북도에 마약사범이 2019년 138명에서 2022년 204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10대~20대 젊은이가 45명 늘어난 61명이나 검거된 것은 청소년과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가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반증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해양 의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코레일 유통과 반딧불농특산물·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무주군은 22일 코레일유통(주)과 반딧불 농·특산물,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관해 공동 홍보에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울 코레일유통(주)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영태 코레일유통(주)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주군은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에 따른 금액별 무주군 답례품 등을 홍보하고 코레일유통(주) 측에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당부했다.

코레일유통(주) 김영태 대표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주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반딧불 농·특산물로 인해 고향뜨라도 잘 되고 농가 성공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이 자리에서 "참여자 입장에서 세액공제도 받고 지역의 우수농산물도 맛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기자

한용재 남원시보건의소장, 마약 NO EXIT 캠페인

한용재 남원시보건의소장이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에서 한용재 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마약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 '제16회 정읍시장기 전북권 야구대회' 개막

동학농민혁명 도시, 정읍시 필연야구장에서 '제16회 정읍시장기 전북권 야구대회'가 21일 개막했다.

이날 필연 야구장에서 개막식을 갖은 '정읍시장기 야구대회'는 정읍시(시장 이화수)가 주최하고 정읍시야구소프트볼(회장 하재훈)이 주관, 정읍시체육회(회장 최규철)가 후원해 16년째를 맞았다.

개막식에서는 이화수 정읍시장과 최규철 정읍시체육회장,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참석해 사전경품추첨을 비롯해 쌀리본 등 생필품을 참석한 야구동호인들에게 나눠주며 분위기가 한껏 뜨거웠다.

야구대회는 3주간 펼쳐지며 예선전을 필연야구장과 열과 1,2구장에서 동시에 더블헤드 토너먼트방식으로 16강전까지 21일 펼쳐졌다.

정읍시야구협회는 가정의 달 5월, 전북권 야구동호인들이 한가득처럼 한데 모여 박진감 있는 멋진 승부로 야구 열정을 나누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달을 맞아 지역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가을에 개최했던 대회를 129주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여 5월에 개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을 나누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달을 맞아 지역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가을에 개최했던 대회를 129주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여 5월에 개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시, 자녀 돌봄 품앗이 가족 대상 도자기 체험

남원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3일과 20일에 공동육아나눔터 자녀 돌봄 품앗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에어 레일과 도자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공동체 모임인 자녀 돌봄 품앗이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쌓고 결속력을 다지고자 추진되었다.

자녀 돌봄 품앗이 가족은 산후조리원 동기 직장 동료, 외동 가정, 다둥이 가정, 같은 아파트 주민, 어린이집 친구 모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 '무주 트레일' 진행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일 무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과 함께 '무주 트레일'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에 참여하는 무주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 약 50명이 무주 덕유산 일대를 함께 걸었다.

이번 행사는 무주 지역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도약·행복·힐링의 교류의 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과 선호도를 적극 수렴해 지역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부총장은 "지역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청년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가족센터,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 성료

임실군가족센터(대표 심민)와 전북도 전북도가족센터협의회가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을 상연했다.

문화 다양성 주관을 맞아 진행된 이번 인형극 상연은 제15회 전라북도 다문화어울림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막어오리 꾸러꾸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서로 다름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내용으로 아동기 성장에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었던 터라 이번 인형극이 현장에서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며 진행되어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임실=전종영 기자



남원시, 사례관리 세대에 식사교환권 전달

남원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100여 명에게 가족의식 체험을 위한 식사교환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외식체험은 일상화복 전환과 가정의 달을 맞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 가족이 외식을 내시기 쉽지 않은 한 부모와 조손가정을 선정, 가족 간 소통과 화합으로 가족애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사권은 이마트 남원점에서 2000원을 후원하는 "우리가족 외식 나들이"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온 가족 음식 취향에 만족할 수 있는 뷔페식이 선정되었으며 식사교환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